

##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4.9.)

-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글로벌 산업·기술경쟁 심화, 내수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“관세폭풍”이라는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.
  - 미국 정부가 자동차, 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고, 중국, EU 등 주요국은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.
  - 기업의 수출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습니다.
    -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.3만명 증가하였지만,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정부는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  - 이를 위해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곧 발표하겠습니다.
    - 이번 추경은 그 어느때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.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

### [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]

- 무엇보다도 통상환경 급변에 대응하여 피해기업을 적기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,
  -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(現 2,400억원)를 1천억원 이상 증액하고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(수은·기은)을 신설합니다.
  -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(現 2,500억원)도 확대하겠습니다.

□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, 수출시장 다변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○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R&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금융지원과 산업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.

- 자동차, 조선, 석유화학 등 업종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, 물류 지원을 확대하고 특례보증(신·기보)과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(수은)을 신설합니다.

□ 아울러,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.

○ 이를 위해 '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'을 마련하고, 산업·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

#### [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]

□ 오늘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.

□ 먼저, 부품기업 등 관세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겠습니다.

○ 피해기업에 특별 정책금융(現 13조원)을 2조원 추가 공급하고, 대기업·금융권과 협력\*해 저금리 대출,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.

\* (출연) 현대차 300억원, 금융권 230억원 (보증) 기보·신보·무보

□ 수요충격을 보완하고 투자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.

○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(~'25.6월)을 연말까지 연장하고, 매칭비율을 최대 80%까지 상향하겠습니다.

○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,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·의장 생산시설에 조세특례를 지원합니다.

## [ 조선 RG 공급 확대방안 ]

□ 최근 조선업 기회요인이 선박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.

\* (Refund Guarantee)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선수금 환급보증

○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\*를 대폭 높이겠습니다.

\* 총 6천억원(정부 출연금 1,200억원) 중 4,245억원 既발급, 1,755억원 추가발급 가능

-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5월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.

○ 조선사가 유망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RG를 발급할 계획입니다.

- 이를 위한 '수주 가이드라인'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에는 면책을 지원하겠습니다.

□ 이어서, 산업부 장관, 중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  
(산업부 장관, 중기부 장관 모두발언)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